

#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 The Stress Types, Coping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with Mothers-in-Law Perceived by Sons-in-Law

오혜정 · 박경란\*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Oh, Hae Jung · Park, Kyung Rhan\*

School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tress types and 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quality with mothers-in-law perceived by sons-in-law.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00 sons-in-law aged 20~49 by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yielded 4 types of coping(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avoidant coping, direct behavior coping, and indirect behavior coping) and 7 types of stress(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interference in daily life, son-in-law discrimination, wife discrimination, uncomfortable interaction, differences in lifestyle, and excessive demand). Second, the total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in-law was affected by avoidant coping and 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Finally,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in-law and sons-in-law was influenced by avoidant coping, uncomfortable interaction stress, direct behavior coping, differences in lifestyle stress, son-in-law discrimination stress, interference in daily life stress, frequency of meeting, 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indirect behavior coping, and age.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sons-in-law's coping styles with stress from their mothers-in-law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amount of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on the relationship quality with their mothers-in-law. Especially, 'avoidant coping' among 4 styles of coping and 'uncomfortable interaction stress' among 7 types of stress influenced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in-law and sons-in-law the most.

**Keywords:** mother-in-law, son-in-law, stress types, coping styles, relationship quality.

### I. 연구의 목적

오늘날 친족관계의 변화양상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선영, 2002; Kim & Kim, 2002; Sung, 2006). 우리 사회에서 양계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Sung, 2006). 그 하나는 양계화를 전통가족이 보였던 부

계 일변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로 보는 입장(김선영, 2002; Cho, 1997)이고, 다른 하나는 현 상황에서 보여 지는 양계화의 허점 즉 대칭적 양계화라기 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로 보는(Han & Yoon, 2004)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적 양계화 현상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욱 뚜렷한 대칭적 양계

\* Corresponding author: Park, Kyung Rhan  
Tel: 055-320-3242, Fax: 055-321-9550  
Email: homerhan@inje.ac.kr

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이 2008년 1.19명으로 줄어든 출산율 감소현상이다(통계청, 2008). 둘째는,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딸만 있는 가정이 증가하였으며, 과거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거나 아들에 의해 가계를 잇게 하겠다는 전통적인 사고관이 약화되면서 기혼 딸 중심의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이동원 외, 2002). 셋째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증가 및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육아를 위해 맞벌이 부부가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며 도움을 주고받는 '수정확대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부양행동과 부양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가보다는 육아 및 가사를 부탁하기 쉬운 친정근처에 살거나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Choi, 1997).

이러한 양계제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장모-사위 관계이다. 이제 장모-사위 관계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비대면적인 간접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교류적이고 대면적인 직접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장모-사위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각종 언론 및 기관들의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모-사위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그동안 한국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갈등관계로 인식되어온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발표되어 왔으나, 장모-사위에 대한 연구는 소수(Park, 1993; Woo, 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친족관계의 양계화 현상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도 우리에게 친족관계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제공해 주었지만, 그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세대관계의 전반적 현상과 양계화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고찰되고 있어(Han & Yoon, 2004) 장모-사위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전통적 사회통념과는 달리 양 세대 간에 스트레스와 갈등 등 새로운 긴장관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관계는 양 세대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계친 의식이 잔존해 있기는 하지만 고부관계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장모-사위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대처방법, 스트레스와 장모와의 관계의 질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파악해 봄으로서 장모사위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부부관계 및 친족관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장모-사위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위가 사용하는 대처방법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둘째,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본다.

셋째,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및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친족관계의 특성과 변화

친족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친족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친족의 의례적 기능 등은 여전히 유지·존속되고 있다고 할 지라도 전체적으로 친족범위가 축소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의 친족의 상호작용은 부계가 약화되고 처가와 유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Han & Yoon, 2004). 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한국가족의 친족관계는 제도적으로는 부계의 연속성이 존재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적 특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예를 들어, Cho(1997)은 결혼한 지 4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계친족을 중요시하는 비율과 양쪽 친족 모두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이미 부계 중심의 친족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친족관계를 조사한 김선영(2002)은 우리 가족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인 관계들 간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규범은 여전히 부계중심적 관계를 강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 중심적이거나 혹은 모계 중심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Han과 Yoon(2004)은 본인 부모와 한 명 이상의 배우자 부모가 생존해 있는 1,755명의 가구대표자를 중심으

로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고찰한 결과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인 모습이 혼재되어있으며, 가족의 협력네트워크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은 부계친족 및 모계친족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라기 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Sung(2006)은 35세~45세 17명(남성 9명/여성 8명)을 심층 면접하여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남성제보자의 경우 거주지 근접성이 처가와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규범 가설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관련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친족관계는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계승계 및 부자관계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가친 못지않게 처가친과도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양계지향적 친족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증가하고 발언권이 확대된다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친족관계가 혈연이 아니라 친밀감에 기초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부계중심이 아니라 부계와 모계를 다 같이 중시하는 양계적 친족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유형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리고 연구목적과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가운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의 세 관점은 자극접근, 반응접근, 상호작용접근이다(박경관 외에서 재인용, 2002; 장현갑, 강성군, 1998). 첫 번째, 자극접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외적 요인이나 외적인 힘으로 기술한다. 즉 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압력’과 같은 자극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반응접근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 자극을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나 내면적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본다. 세 번째, 상호작용접근의 입장은 스트레스 반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최근에 이르러 인간이

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단순한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Lazarus & Folkman, 1991; as cited in Park & Park, 2009)라고 본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가장 보편적인 갈등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종단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Clarke *et al.*(1999)은 첫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스타일 둘째, 생활습관 및 스타일 선택 셋째, 자녀양육수행 및 가치 넷째, 정치 종교 및 이데올로기 다섯째, 일 지향 여섯째, 가사기준 및 유지 등 6개 유형의 갈등주제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장모-사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최근의 김선영(2002)의 연구에서는 사위들이 장모와의 잦은 접촉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예전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하여 느꼈던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장모님의 잔소리가 제일 싫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남성의 전화’에 의하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양능력 부족에 대한 장모의 박대, 아들 같은 사위를 요구하는 장모의 높아진 기대수준, 무조건 딸 편만 드는 장모의 태도, 부부사이의 지나친 개입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장모-사위 갈등의 원인으로 장모의 심한 간섭, 의존적 아내, 가부장적인 남편의 의식 등을 지적하였다(“신 고부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려하는 현대 남성들!”, 2010).

### 2) 대처방법의 개념 및 유형

스트레스 과정은 연속적이다. 즉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은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과 관련되는가를 지각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낄 것일까를 결정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Berko *et al.*, 1997). Pearlin *et al.*(1990)은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개인 자신의 적응을 위하여 행하는 행동과 실행이라고 하면서, 대처에는 1)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에 대한 관리 2) 증상을 감소시키는 상황의 의미에 대한 관리 3) 그 상황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증상의 관리 등 세 측면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환경이나 상

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훨씬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처방법 유형에는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비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있다(Berko *et al.*, 1997). 여기서 비효과적인 대처방법이란 개인이나 대인관계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Berg-Cross(1999) 역시 대처 유형에는 적응적·부적응적 대처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적응적 대처유형은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반면, 부적응적 대처유형은 보통 감정에 초점을 두는 행동들 즉 적대적인 대항, 감정폭발, 또는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것 등으로 접근한다.

학자들이 분류한 대처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Folkman과 Lazarus(1985)는 성격 또는 기질적인 특성에 의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ramer(1993)는 대처방법을 문제중심적·인지중심적·정서중심적 등 3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Cho *et al.*(1996)는 노부모와 기혼자녀 양 세대 간에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즉 6유형의 갈등 대처행동에서 도움찾기 행동을 제외한 몰두 및 몰입행동, 기분전환행동, 억제 및 회피행동, 분출행동, 조정행동의 5 가지의 대처행동은 노부모 세대에 비해 기혼자녀가 높게 나타나 기혼자녀 세대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갈등 대처행동들을 찾고 실행해 봄으로써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Park과 Yi(2003)의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대처로는 회피억압,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직접표현, 호소 등 5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적극적 이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직접표현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처방법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Anderson과 Sabatelli(1999)는 문제지향적 대처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Ben-Zur(2005)도 정서중심적 대처를 한 성인들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던 반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한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Lee(1990)은 호소나 회피 등의 대처방법은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니며, 스트레스 상황을 재분석하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Park과 Yi(2003)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며느리의 대처방법 5유형 모두가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억압회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호소, 직접표현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매개가 되어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Park & Park, 2009)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대처방법의 사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3. 관계의 질

### 1) 관계의 질 개념

현대사회에서 세대 간의 유대관계가 기본적으로 “자발적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세대관계의 질적인 면, 특히 정의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구의 세대관계의 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리를 둔 친밀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잦은 접촉을 통해 빈번한 상호작용을 가지되 상호관계는 독립적인 호혜성을 기초에 둬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세대관계의 질은 주로 부양과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족의 양계화 현상과 함께 세대 간의 호혜적 상호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서구의 세대관계를 닮아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점차로 세대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세대관계에서의 질적 유대관계는 구성요소에 따라 다차원에서 개념화되기도 하고 단일차원에서 개념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Quinn(1983), Quinn과 Keller(1983)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부모자녀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단일차원에서 개념화하였다. 다차원적으로 세대관계의 질을 개념화한 Bengtson(1975)은 상호간의 이해, 신뢰감, 공평함, 존경심, 애정의 5가지 차원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세대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질과 부정적 질(예: 분노, 요구, 비판; Antonucci, 2001)을 모두 갖지만, 관계

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보다 격렬하고, 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안녕과 복지와 더욱 높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Newsom *et al.*, 2003; Rook *et al.*, 2004).

2) 스트레스와 관계의 질

관계적 측면에서, 갈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관계의 성장을 가져다준다면, 그 갈등은 기능적이며, 관계의 응집성이 위협받는다면 그 갈등은 역기능적이다.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 갈등은 기능적이며, 개인에게 어리석고, 부적절하고, 비참하다는 느낌을 남긴다면 그 갈등은 역기능적이다(Berko *et al.*, 1997).

김선영(2002)의 연구에서 사위들은 장모를 친족관계 중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두 번째 사람으로 꼽았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양자녀의 부양부담(Strawbridge & Wallhagen, 1991)에 더 깊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되 노부모와 기혼자녀 세대 간에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대처방법의 경우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Anderson & Sabatelli, 1999; Kim, 1993; Lee, 1990)에서 그 결과가 일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Lee(1990)의 연구에서 고부갈등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 간에는 사용하는 대처행동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결혼 초기에 비해 고부갈등이 감소한 집단은 증가한 집단에 비해 친구에 호소, 회피 등의 대처방법을 적게 쓰는 반면, 재분석의 대처방법은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49세의 사위 300명이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사위의 측면에서 장모님과의 제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장모가 생존해 있는 사위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0대가 33.3%, 30대가 40.0%, 40대가 26.7%로 분포되어 비교적 젊은 사위로 구성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상(65.3%)이, 사위위치로는 만사위(40.7%)가 가장 많았다. 사위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은 5년 미만인 36.7%, 5-9년 31%, 10-14년 17.7%, 15년 이상이 14.7%였으며, 거의 대부분(97.3%)이 장모와 따로 거주하였다. 장인·장모가 동거하는 경우는 71.7%, 비동거(사별, 이혼, 별거)

(Table 1) Contact Frequency between Sons-in-Law and Mothers-in-Law

N=300

Contact			f	%
Meeting	Less than	1-2 times/ 1 year	36	12.0
		1-2 times/ 6 months	70	23.3
		1-2 times/ 1 month	123	41.0
	More than	1-2 times/ 1 week	71	23.7
Calling & E-Mailing	Less than	1-2 times/ 1 year	51	17.0
		1-2 times/ 6 months	30	10.0
		1-2 times/ 3 months	55	18.3
		1-2 times/ 1 month	98	32.7
	More than	1-2 times/ 1 week	66	22.0

하는 경우는 28.3%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측면에서 장모님과의 ‘만남빈도’는 1개월 1-2회 만나는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락빈도’는 1개월에 1-2회 연락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2.7%를 나타내어 예상과는 다르게 ‘만남빈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본 연구의 절차는 우선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40대의 사위 50명을 대상으로 약 보름간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연구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밀 코리아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를 대상으로 약 보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 2. 조사도구

### 1)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스트레스를 ‘장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내적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척도는 일차적으로 i) 세대 간의 스트레스를 고찰한 선행연구(Kim, 1995; Woo, 2003), ii) 사위를 대상으로 한 장모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iii) 각종 매스미디어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스트레스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6개 문항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3 참조>.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 2) 대처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란 “장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처방법 측정도구는 관련문헌(Im, 2004; Pines & Arouson, 1988) 및 사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방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처방법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15개 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4 참조>.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있다.

### 3) 관계의 질

장모-사위간의 관계의 질의 척도는 관련문헌(Hawkey *et al.*, 2008; Park & Yi, 2003)에서 사용한 관계만족도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문항 수는 4개로 평소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유대

<Table 2> Measurement

	Variable	N. of Items	Likert Scale	Cronbach's $\alpha$
Stress Types	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3	1 - 4	.843
	Interference in daily life	3	1 - 4	.832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2	1 - 4	.805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2	1 - 4	.752
	Excessive demand	2	1 - 4	.740
	Differences in lifestyle	2	1 - 4	.685
	Uncomfortable interaction	2	1 - 4	.667
	Total stress	16	1 - 4	.934
Coping Styles	Avoidance	4	1 - 5	.820
	Cognitive understanding	5	1 - 5	.789
	Direct behavior	3	1 - 5	.774
	Indirect behavior	3	1 - 5	.601
Relationship Quality		4	1 - 5	.820

및 결속정도를 평가하는 긍정적 문항 3개(전반적으로 “장모님과 관계가 만족스럽다”, “장모님과 서로 의지한다”, “장모님과 서로 가깝고 친밀하다”)와 부정적 문항 1개(“장모님과 거리감이 있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개 응답범주로 되어 있다.

4) 접촉빈도

장모-사위간의 접촉빈도는 ‘만남빈도’와 ‘연락빈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만남빈도’는 4개 범주(1년에 1-2번 이하~1주일에 1-2번 이하)로 측정하였으며, ‘연락빈도’는 5개 범주(1년에 1-2번 이하~1주일에 1-2번 이하)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시에는 만남빈도는 2개 범주로, 연락빈도는 3개 범주로 재 범주화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4. 분석방법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계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스트레스 유형 및 대처방법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및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와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Durbin-Watson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의 유형 및 정도

1) 스트레스의 유형 및 정도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16개 문항에서 ‘능력·조건비하’(다른 사람에게 내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신다 · 나의 경제적 무능함을 은근히 닷하실 때가 있다 · 당신 딸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일상생활간섭’(일상에서 내 생각과 많이 달라 부딪힐 때가 있다 · 내 아내에 대해 필요이상 간섭하실 때가 있다 · 가정사에 필요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가 있다), ‘사위차별대우’(사위고생보다 딸 고생하는 것만 안타까워하신다 · 아내와 다툼 시 일방적으로 딸 편만 드실 때가 있다), ‘아내차별대우’(아내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셔서 속상하다 ·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내 아내를 차별하신다), ‘불편한 상호작용’(장모님을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을 때가 있다 · 나를 보면 장모님은 어려워하신다), ‘과도한 요구’(우리에게 경제적 도움을 많이 원하셔서 부담스럽다 · 장모님은 선물이나 용돈 등을 과하게 요구하신다), ‘생활양식차이’(장모가 해주신 음식, 옷등 생활양식이 맞지 않는다 · 장모님 행동이나 생활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Table 3>.

먼저,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이 1.99점(4점 만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 볼 때, ‘불편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평균 2.64점)를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위차별대우’(평균 2.13점), ‘생활양식차이’(평균 1.99점)의

<Table 3> Factor Analysis of Stress Type Perceived by Sons-in-Law

Stress Type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	M(SD)
Factor 1	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2.40	15.00	15.00	1.80(.71)
Factor 2	Interference in daily life	2.18	13.62	28.62	1.98(.74)
Factor 3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1.82	11.42	40.04	2.13(.83)
Factor 4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1.68	10.53	50.58	1.80(.75)
Factor 5	Uncomfortable interaction	1.67	10.45	61.03	2.64(.72)
Factor 6	Excessive demand	1.58	9.89	70.92	1.99(.77)
Factor 7	Differences in lifestyle	1.46	9.14	80.06	1.67(.70)

순이었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균 1.6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처방법 유형 및 정도

장모-사위 관계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위의 대처방법 유형은 요인분석을 통해 총15개의 문항의 ‘인지적 이해 대처’(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장모님 입장과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내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한다·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회피적 대처’(무대응으로 일관한다·가급적 장모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방문, 전화 횟수를 줄여서 장모님과 거리감을 둔다·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참는다), ‘직접적 행동 대처’(장모님께 이벤트, 식사대접등 적극적 변화를 시도한다·장모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해결한다·평소보다 장모님과 상호작용할 기

회를 늘린다), ‘간접적 행동 대처’(아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 의사가 전달되게 한다·처제나 처남 등 다른 가족들과 얘기해 본다·아내와 의논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4>.

사위들은 대처방법가운데 ‘인지적 이해대처’(평균 3.53점)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간접적 행동 대처(3.13점), 직접적 행동대처(2.96점), 회피적 대처(2.62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사위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대처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앞서 대처방법, 스트레스, 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Table 4> Factor Analysis of Coping Styles Perceived by Sons-in-Law

Coping Style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	M(SD)
Factor 1	Cognitive understanding	2.80	18.67	18.67	3.53(.67)
Factor 2	Avoidance	2.76	18.39	37.07	2.62(.91)
Factor 3	Direct behavior	2.46	16.45	53.53	2.96(.87)
Factor 4	Indirect behavior	1.66	11.09	64.63	3.13(.78)

<Table 5> Intercorrelations among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 Qualit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Despising poor ability& condition	-											
2. Interference in daily life	.69**	-										
3.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65**	.67**	-									
4.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65**	.64**	.58**	-								
5. Uncomfortable interaction	.32**	.40**	.41**	.45**	-							
6. Differences in lifestyle	.57**	.62**	.57**	.63**	.45**	-						
7. Excessive demand	.64**	.59**	.55**	.61**	.30**	.55**	-					
8. Cognitive understanding	-.21**	-.26**	-.22**	-.21**	-.15**	-.13*	-.19**	-				
9. Avoidance	.45**	.47**	.44**	.51**	.38**	.47**	.46**	-.22**	-			
10. Direct behavior	-.16**	-.19**	-.19**	-.18**	-.37**	-.13*	-.08	.53**	-.38**	-		
11. Indirect behavior	-.09	-.08	-.02	-.11	-.17**	-.04	.01	.44**	-.14*	.47**	-	
12. Relationship quality	-.36**	-.35**	-.43**	-.43**	-.57**	-.44**	-.34**	.43**	-.62**	.61**	.39**	-

\*  $p < .05$     \*\*  $p < .01$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Independent Variables	Despising poor ability & condition	Interference in daily life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Uncomfortable interaction	Differences in lifestyle	Excessive demand	Total stress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Age	.009	-.008	.082	-.058	-.018	.045	-.035	.012
Education 1 <sup>a</sup>	-.063	-.039	-.037	-.036	.120	.078	-.081	-.022
Education 2 <sup>b</sup>	-.024	-.041	-.034	-.032	.083	.016	-.099	-.028
Monthly Income 1 <sup>c</sup>	.014	.047	.087	.126	.121	.120	.050	.089
Monthly Income 2 <sup>d</sup>	-.058	.080	.056	.048	.019	.186*	.086	.082
Son-in-law's Position 1 <sup>e</sup>	.030	.027	.051	.095	.002	.036	.005	.042
Son-in-law's Position 2 <sup>f</sup>	-.037	-.001	.005	.025	-.039	-.006	-.018	-.019
Meeting <sup>g</sup>	-.014	.015	.043	-.130*	-.091	.011	-.087	-.029
Calling & E-Mailing 1 <sup>h</sup>	.024	.060	.045	.017	-.035	-.107	-.023	.018
Calling & E-Mailing 2 <sup>i</sup>	-.024	.053	-.068	-.046	-.103	-.107	-.069	-.051
Cognitive understanding	-.175**	-.219***	-.161*	-.146*	.086	-.073	-.211**	-.174**
Avoidance	.449***	.460***	.412***	.493***	.258***	.464***	.469***	.547***
Direct behavior	.122	.058	.062	.129	-.249***	.123	.219**	.086
Indirect behavior	-.007	.038	.030	-.025	-.036	.015	.088	.021
Constant	3.853	4.569	2.102	2.531	4.881	.952	2.049	20.559
R <sup>2</sup>	.236	.256	.235	.313	.246	.264	.276	.364
Adjusted R <sup>2</sup>	.199	.219	.198	.279	.208	.228	.240	.333
F	6.298***	7.001***	6.264***	9.263***	6.624***	7.316***	7.750***	11.673***

Notes 1: Son-in-law's position is determined by his wife's age.

Notes 2: The following variables i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sup>a</sup>:1=Community collage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sup>b</sup>:1=University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sup>c</sup>:1=₩2-4million(0=less than ₩2million), <sup>d</sup>:1=more than ₩4million(0=less than ₩2million), <sup>e</sup>:1=middle · youngest(0=eldest), <sup>f</sup>:1=only(0=oldest), <sup>g</sup>:1=more than 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6 months), <sup>h</sup>:1=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3 months), <sup>i</sup>:1= more than 1-2 times/1 week(0=less than 1-2 times/3 months).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장모-사위의 총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경변인과 대처방법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그 결과, 회피적 대처( $\beta=.547$ )와 인지적 이해대처( $\beta=-.174$ )가 총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33.3%이었다. 즉 회피적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지적 이해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음, 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관련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반

적으로 각 스트레스 영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회피형 대처’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지적 이해대처’와 ‘직접적 행동대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증과 우울증이 높아지고 긍정적 사고대처를 많이 할수록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Kim(1995)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며, 고부관계에서 며느리의 적극적 이해 대처방법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Park과 Yi(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직접적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Relationship Quality Perceived by Sons-in-Law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Background Variable	Age	-.011	-.020	.037	.070	.047	.088*		
	Education 1 <sup>a</sup>	.110	.013	-.267	-.031	.103	.012		
	Education 2 <sup>b</sup>	.090	.013	.094	.013	.274	.038		
	Monthly Income 1 <sup>c</sup>	.443	.065	.032	.005	.364	.053		
	Monthly Income 2 <sup>d</sup>	.125	.016	-.087	-.011	.307	.040		
	Son-in-law's Position 1 <sup>e</sup>	.191	.028	-.028	-.004	.011	.002		
	Son-in-law's Position 2 <sup>f</sup>	.500	.046	.515	.047	.414	.038		
	Meeting <sup>g</sup>	1.631	.229***	1.063	.149***	.993	.139***		
	Calling & E-Mailing 1 <sup>h</sup>	1.635	.225***	.275	.038	.175	.024		
Calling & E-Mailing 2 <sup>i</sup>	3.157	.384***	1.149	.140**	.689	.084			
Copying Types	Cognitive understanding			.103	.102*	.129	.127**		
	Avoidance			-.392	-.418***	-.297	-.316***		
	Direct behavior			.340	.261***	.281	.216***		
	Indirect behavior			.189	.129**	.179	.122**		
Stress Styles	Despising poor ability & condition					.021	.013		
	Interference in daily life					.216	.140*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287	-.141**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082	.036		
	Uncomfortable interaction					-.550	-.233***		
	Differences in lifestyle					-.360	-.163**		
Excessive demand					.016	.007			
Constant		10.026		7.578		9.905			
R <sup>2</sup>		.258		.614		.695			
Adjusted R <sup>2</sup>		.232		.595		.672			
$\Delta$ R <sup>2</sup>				.363		.077			
F		10.038***		32.374***		30.216***			

Notes 1: Son-in-law's position is determined by his wife' age.

Notes 2: The following variables i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sup>a</sup>:1=Community collage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sup>b</sup>:1=University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sup>c</sup>:1=₩2-4million(0=less than ₩2million),

<sup>d</sup>:1=more than ₩4million((0=less than ₩2million), <sup>e</sup>:1=middle · youngest(0=eldest), <sup>f</sup>:1=only(0=oldest), <sup>g</sup>:1=more than 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6 months), <sup>h</sup>:1=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3 months), <sup>i</sup>:1= more than 1-2 times/1 week(0=less than 1-2 times/3 months).

\*  $p < .05$  \*\*  $p < .01$  \*\*\*  $p < .001$

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Lee(200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회피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적극적 대처의 사용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준다고 한 Holahan와 Moos(1991)의 결과를 지지한다.

### 3.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사위 관계의 질

#### 1)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전반적 경향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계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11점으로 '그저 그렇다'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부관계를 고찰한 Paeng(2010)의 연구에서 고부관계의 질이 5점 만점에 3.4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위들의 장모에 대한 질적 관계가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질적 관계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다.

#### 2)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결정요인

<Table 7>을 통해 장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모델1에서 배경변인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연락빈도2( $\beta=.384$ ), 만남빈도1( $\beta=.229$ ), 연락빈도1( $\beta=.225$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2%로 밝혀졌다. 모델 2에서는 배경변인과 대처방법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데 회피적 대처( $\beta=.418$ )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직접적 행동대 처( $\beta=.261$ ), 만남빈도1( $\beta=.149$ ), 연락빈도2( $\beta=.140$ ), 간접적 행동대처( $\beta=.129$ ), 인지적 이해대처( $\beta=.102$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6개 변인의 설명력은 59.5%였다. 모델 2에서 대처방법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설명량이 36.3% 증가하였다.

최종적인 모델 3에서는 배경변인과 대처방법, 스트레스 유형 변인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회피적 대처( $\beta=-.316$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불편한 상호작용( $\beta=-.233$ ), 직접적 행동대처( $\beta=.216$ ), 생활양식차이( $\beta=-.163$ ), 사위차별대우( $\beta=-.141$ ), 일상생활간섭( $\beta=.140$ ), 만남빈도( $\beta=.139$ ), 인지적 이해대처( $\beta=.127$ ), 간접적 행동대처( $\beta=.122$ ), 연령( $\beta=.088$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변인의 총설명량은 67.2%로 나타났으며, 모델 3에서 스트레스유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량이 7.7%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위들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회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불편한 상호작용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직접적 행동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양식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사위차별대우를 적게 받을수록, 일상생활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장모와의 만남빈도를 1개월에 1-2번 이상 자주 가질 때, 인지적 이해로 스트레스를 대처할수록, 간접적 행동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장모와의 관계를 더욱 좋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장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부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Park과 Yi(2003), Lee(1990), Holahan과 Moos(199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장모사위가 서로 간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안부 차 방문할수록, 전화통화를 자주할수록 애착, 의무감, 생활교류가 높고 갈등이 낮다는 Park(1993)의 연구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모-사위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모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위가 사용하는 대처방법 유형은 ‘인지적 이해대처’, ‘회피적 대처’, ‘직접적 행동대처’, ‘간접적 행동대처’의 4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 4유형 가운데 사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인지적 이해대처’이었으며, 그 다음은 ‘간접적 행동대처’, ‘직접적 행동대처’, ‘회피적 대처’의 순이었으며, 대체로 부정적인 대처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은 ‘능력조건비하’, ‘일상생활간섭’, ‘사위차별대우’, ‘아내차별대우’, ‘불편한 상호작용’, ‘생활양식차이’, ‘과도한 요구’ 등 7개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사위가 지각하는 총 스트레스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는 ‘불편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과도한 요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모-사위의 총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피적 대처와 인지적 이해대처의 2개 변수였으며, 하위영역별 스트레스에서도 각 영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회피형 대처’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지적 이해대처’와 ‘직접적 행동대처’ 순이었으므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계의 질은 ‘그저 그렇다’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은 회피적 대처이었으며, 그 다음이 불편한 상호작용, 직접적 행동대처, 생활양식차이, 사위차별대우, 일상생활간섭, 만남빈도, 인지적 이해대처, 간접적 행동대처, 연령의 순이었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장모-사위 관계의 질은 장모로 인해 사위가 받는 스트레스 양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대처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크기보다는 어떤 대처방법이 더욱 효율적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해 이제 장모-사위 관계는 더 이상 사위가 대접받는 위치만을 고수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위를 백년손님으로 일컬으면서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관계로 인식하여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장모-사위 양 세대 모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회피적 대처’ 방법은 본 연구에서 고찰된 스트레스 대처방법 4유형 가운데 장모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머지 대처방법 3유형이 모두 긍정적인 방법임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모-사위 관계에는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회피적 대처’ 방법은 대부분 자신의 욕구도 상대방의 욕구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건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회피전략은 단기간동안은 문제회피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미해결된 채 남게 되므로 반복해서 계속 직면해야만 된다(Park & Yi, 2003). 또한 ‘회피적 대처’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위가 겪는 총 스트레스 및 하위스트레스 정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위들이 ‘회피적 대처’ 방법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이것은 관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요즘 장모들은 사위들을 대접해야 할 손님이 아닌 ‘아들 같은 사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좀 더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처럼 단순히 거리를 두거나 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긍정적 대처방법 3유형 중에서는 ‘간접적 행동 대처’, ‘인지적 이해대처’보다는 ‘직접적 행동대처’ 방법이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더욱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모님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늘리거나 직접대화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내나 다른 처가 가족들을 통해 해결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장모관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사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직접

표출하고 행동함으로써 스트레스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대상자인 사위들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불편한 상호작용’을 꼽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편한 상호작용’이 고찰된 7개 스트레스 유형가운데 장모와의 관계의 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사위들은 장모가 사위를 어렵고 불편하게 여기고 상호작용 시에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식으로 대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것이 장모와의 질적 관계를 낮게 평가하도록 이끈다. 본 연구에서 적어도 1개월에 1-2번 장모와 만나거나 1주에 1-2번 정도 연락을 취하는 사위들이 그렇지 못한 사위들보다 스트레스는 적게 느끼고, 장모와의 관계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간혹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갈등을 초래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잦은 만남 속에 장모-사위 서로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관계를 조율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므로 ‘불편한 상호작용’은 줄어들 것이므로 관계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예상과는 달리 스트레스 유형 중 ‘일상생활간섭’은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모로부터 받는 필요이상의 생활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컨대, 이는 장모의 지나친 참여에서 오는 피곤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나 그 보다는 장모의 이러한 행동을 자신과 아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장모-사위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일상생활의 참여 내지 간섭으로 비취질 수도 있지만 자주 접촉함으로써 상호간의 ‘불편한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이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 유형 중 ‘생활양식차이’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장모님의 도움과 관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재조정과 이해를 위해 의사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시댁의 가풍이나 생활양식 등에 주의를 기울여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사위들도 처가의 가풍이나 생활양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결과 집단별 비교에서는 20대의 사위들은 40대의 사위들에 비해 장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있으며,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40대의 사위들에 비해 ‘인지적 이해대처’는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적 대처’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사위의 연령은 장모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으로, 연령이 높은 사위일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관계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상호 적응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추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여덟째,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모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장모와의 질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스트레스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세대 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갈등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를 실행해야만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모의 연령을 고려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상 연구대상을 20대~40대까지 한정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의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장모-사위의 질적 관계를 처음으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유형’, ‘대처방법 유형’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고 명료화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사위의 입장에서 장모와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나 추후 장모 측면에서 사위와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딸(아내)의 영향력도 포함시켜 비교분석 한다면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장모-사위관계의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장모-사위관계,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계의 질

REFERENCES

김선영. (2002). 친족관계. 이동원 · 김현주 · 최선희 · 함인희 · 김선영. **한국가족의 현주소**, 245-277. 서울: 학지사.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7(1), 127-138.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2002). **현대가족학**. 서울: 신정.

신 고부갈등(처가스트레스)으로 이혼까지 고려하는 현대 남성들! (2010, 7. 14). **동아일보**, 자료 검색일 2010, 7. 14, 자료출처 <http://www.donga.com/news.donga.com/Economy/3/01/20100714/29878640/2>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장현갑, 강성균. (1998). **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 서울: 학지사.

통계청. (2008). 2008년 출생통계 결과. 인터넷 보도자료. 자료검색일 2008, 8. 29, 자료출처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9).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Antonucci, T. (2001). Social relations. In Birren, J. E., & Schaie, K. W.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5th ed.), 427-45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Ben-Zur, H. (2005). Coping, distress, and life events in a community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2(2), 188-196.

Berg-Cross, L. (1999). *Couples Therapy*. Thousand Oaks: Sage.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Cho, C. M. (1997). The study of the bilateralization of Korean kin relationship.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13(1), 87-114.
- Cho, K. J., Han, D. H., & Cho, E. H. (1996). A study on the conflict and coping behaviors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6), 261-273.
- Choi, J. H. (1997). Filial piety and familism of the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55-69.
- Clarke, E. J., Preston, M., Raksin, J., & Bengtson, V. L. (1999). Types of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The Gerontologist*, 39(3), 261-270.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Han, G., & Yoon, S. E. (2004).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relations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 177-203.
- Hawkey, L. C., Hughes, M. E., Waite, L. J., Masi, C. M., Thisted, R. A., & Cacioppo, J. T. (2008). From social structural factors to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and loneliness: The Chicago health, aging, and social relations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3B(6), S375-S384.
- Holahan, C. J., & Moos, R. H. (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 four-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1-38.
- Im, Y.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coping methods with stress of married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
- Kim, D. Y. (1993). Effects of instrumentality, family support and coping on depression: A focus on high school student's stress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im, S. O., & Kim, S. J. (2002). Kinship behavior of marital couples in early stage.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5, 195-214.
- Kim, T. Y. (1995). Study the relationships of conflict, the ways of coping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daughters-in-law.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ramer, B. J. (1993).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caregiver coping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focused coping strategies, *Family Relation*, 42, 383-391.
- Lazarus, R. S., & Folkman, S. The concept of coping. In Monat, A., & Lazarus, R. S. (Eds.). (1991).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3rd ed.), 189-206.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J. Y. (1990). A study on conflict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8(2), 135-146.
- Lee, M. J. (2002). Job stress of middle-aged man and it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according to the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Korea.
- Nam, S. H. (2004).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tegration in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Problem Psychology*, 10(2), 1-15.
- Newsom, J. T., Nisishiba, M., Morgan, D. L., & Rook, K. S. (2003).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ree domains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exchanges: A longitudinal model with comparable measures. *Psychology and Aging*, 18, 746-754.
- Paeng, J. O. (2010). A study on the stress of mother-in-law caregiving perceived by daughter-in-law and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daughter- in-law. Unpublished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Korea.

- Park, J. Y. (1993). Life Emotion and life Interchange between son-in-law and mother-in-law, daughter-in-law and mother-in-law.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Park, K. R., & Yi, Y. S. (2003). Stress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79-104.
- Park, S. H., & Park, H. J. (2009).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67-81.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 Pines, A. M., & Arouson, E. (1988). *Career Burnout, Cases & Cures*. New York: Free Press.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Quinn, W. H., & Keller, J. F. (1983). Older generations of the family: Relational dimensions and qu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1(3), 23-34.
- Rook, K. S., Sorkin, D., & Zettel, L. (2004). Stress in social relationships: Coping and adaptation across the lifespan. In Lang, F. R., & Fingerman, K. L.(Eds.), *Growing together: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240-26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wbridge, W. J., & Wallhagen, M. I. (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6), 770-777.
- Sung, Mi-Ai (2006). Bilateralization phenomena in Korean familie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3), 59-72.
- Woo, M. H. (2003). Study on sons-in-law's support consciousness toward wives' fathers and mothers: focusing on the support consciousness and mutual interchange.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Korea.

| 접수일 : 2011. 09. 28.  
 | 수정완료일 : 2011. 11. 28.  
 | 게재확정일 : 2011. 11. 28.